

## 현대패션에 응용된 신조형주의의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

- 몬드리안 회화를 중심으로 -

정경희 · 배수정<sup>†</sup>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A Study on the Formative Elements of Neo-plasticism Applied on Contemporary Fashion.

Kyung-Hee Jeong-Soo-Jeong Bae<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trend of art and fashion which predominate a certain tim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how plasticity found in Mondrian's pictures are applied to modern fashion with its focus on formative elements. Mondrian was ahead of abstractionism, a major trend of contemporary art, and defined the theory of neo-plasticism.

The theory of neo-plasticism defined by Mondrian is characterized by the limited expression of lines and shapes by using only vertical and horizontal straight lines, and right angles and four-sided figures weaved by the lines, and the use of achromatic color(black, white, and gray) in three primary colors(red, blue, and yellow). Based on his theory, he fully displayed the world of geometric abstraction.

Mondrian's formative elements which have been applied in modern fashion can be divided into shape and color. For the element of shape, first,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have been applied to patterns, trimmings, detail, and plane of textiles through simplification of design, representing proportion, balance, and stress in a silhouette. Second, plane and diamond shapes made of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have been applied to textiles or patterns with uniqueness. For the element of color, first, three primary colors and achromatic colors are used to seek the aesthetics of balance and harmony that are produced in the strain of conflict through brightness, chroma, and complementary colors. Second, primary colors of high chroma and brightness which are much stronger than pictures are used to express a modern sense.

Formative elements of neo-plasticism, which have been applied to modern fashion suggested by this study, are connected with the trend of art contemporary designers have borrowed. Accordingly, this study will become a very helpful material which provides designers with original ideas in developing materials and patterns which connect design with art.

Key words : neo-plasticism, Mondrian,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shape, color

<sup>†</sup> Corresponding author, Soo-Jeong Bae, E-mail : sjbae@chonnam.ac.kr

## 1. 서론

### 1. 연구목적

인간의 예술활동 중에서 시각적으로 입체감각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형, 선, 색, 재질 등의 조형요소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을 통틀어 조형예술(이은경 1997)이라 하는데, 현대 조형예술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운동으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자유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의 시각적 조형예술로 간주할 수 있는 복식 또한 조형예술과 연관성을 가지며 발전하고 있는데, 그 예로 과거복식이 실용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패션은 다양한 예술장르와 결합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조형예술의 한 표현으로 발전시켜 그 창조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20세기 초반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입체주의, 신조형주의 등의 예술양식이 현대패션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응용되어 왔고, 이에 따라 복식과 예술사조의 미학적 분석을 통해 디자인 원리와 작품 구상에 응용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패션에서 응용되고 있는 여러 예술사조 중 신조형주의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회화, 제품디자인 등의 예술분야, 건축, 패션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현대패션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몬드리안회화의 수평·수직선을 의상이나 디자인발상에 응용한 연구(이소영 1991; 정혜정 1997; 조진숙 2004)가 이루어지고 있어 몬드리안회화의 조형요소와 현대패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사조와 복식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인 추상주의의 선구자이자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의 이론을 확립한 몬드리안의 회화작품이 현대패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형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로써 패션과 예술의 결합사이에 내재된 조형요소의 공통점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적 디자인 개발과 다양한 패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응용된 몬드리안 회화작품의 조형요소들을 분석함에 있어 시간적 범위를 1990년대 이후 컬렉션부터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몬드리안의 회화작품은 신조형주의 이론정립 이후 추상세계를 전개한 파리시대 이후(1919~1943) 작품들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몬드리안이 추상세계에 입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시기의 회화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적 특징들이 현대패션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형과 색의 요소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으로 선행논문과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 자료로는 관련 논문과 문헌 및 패션전문잡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몬드리안 회화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추상미술이 유럽전역에 전파된 배경과 몬드리안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예술관의 변화, 몬드리안에 의해 정립된 신조형주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 1. 추상미술의 발전과 확산

20세기 초 미술계는 새로운 이념이 다양하게 전개된 시기로, 유럽전역은 인상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사실주의가 사물의 형태와 고유색을 강조했다면 인상주의는 과학과 보조를 이루며 광선묘사의 실험적 방법에 의한 색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인상주의와는 다른 회화방법인 후기 인상주의가 등장하였는데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주로 색채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한 외형적 표현수단이 아닌 회화의 목적으로 인식하였다.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화가인 반 고흐와 고갱은 색채와 공간에서 추상성을 추구하여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았는데 이는 색채를 목적으로 끌어올림으로 새로운 형을 창출한 야수파에 영향을 미쳤다(이은경 1997). 한편 세잔느는 그리고자 한 상을 형의 면에서 찾았는데 그가 시도한 사물의 구축적 표현은 더 확대된 입체파에

영향을 미쳐 모든 대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화면상에서 재구성한 입체주의의 조형적 표현의 가능성은 이미 추상의 길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에는 후기 인상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등 많은 사조들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미술사조들이 '자연의 재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더 이상 재현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과 아카데미즘이 가진 진부함에 도전한 점에 있어서 추상미술이 그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김현화 2002). 이로써 추상미술의 움직임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몬드리안이 신조형주의를, 러시아에서 말레비치가 절대주의를, 조각을 추상의 기호 아래 둔 러시아 구성주의, 독일의 표현주의와 바우하우스 등으로 확산되어 1910년대의 활발한 탐구에 거쳐 1920년대에 유럽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조형적 형태언어가 되었다.

## 2. 몬드리안 추상세계의 기초

예술가들이 하나의 사조에만 심취되어 있지 않듯이 몬드리안도 처음부터 추상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자연적 사실주의에서 시작한 그는 입체주의를 실험하면서 진실로 추상적 정수를 점차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몬드리안을 확고히 추상의 길로 들어서도록 사상과 작품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신지학을 들 수 있다. 몬드리안이 영향을 받은 신지학(Theosophy)은 그리스어의 신(theos)과 지(sophid)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용어로서 종교와 철학이 융합된 세계관이다. 감각적으로 육신과 신이 일체가 되어 그 순간 덧없는 황홀감을 맛보고 몰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신비주의적 사상이다(박경진 2002).

또한 몬드리안 어린 시절 교육자인 부친으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철저한 칼비니스트로서 금욕적이고 절제된 생활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몬드리안의 성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의 추상세계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칼비니스트적인 엄격함이 그의 작품에 승화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정미 2004). 하지만 그는 칼비니즘으로 인한 종교적인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하였는데 이를 신지학으로 해결하였다. 이처럼 신지학은 평생 몬드리안의 마음을 지배했으며, 수평과 수직, 선과 색채의 관계를 통한 '보편' 과 '균형' 을 요구한 몬드리안 이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신지학의 영향으로 그는 전 우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물에서 발견되며 서로 대립하는 평형적 긴장(김형자 1998)이라는 이원적 원리를 그의 작품세계에 나타내었다. 즉 그는 수직수평적 요소를 "수평=여성=시간=역동성=멜로디", "수직=남성=공간=정적=하모니" 라는 이원적 요소로 대립시켜 설명하였다. 이 대립은 수평과 수직이 결국 직각과 사각형의 평면을 만들어 균형을 이룬 조화를 형성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신지학자인 쉐마커스의 "공간=구체적 진화=수직", "시간=구체적 역사=수평" 이라는 양식과 평행하고 있다(박은숙 1980).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요소는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데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예술 안에서 합일되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또한 그는 이 이원적 요소들 사이의 균형은 곧 행복이고 불균형은 비극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박경진 2002). 몬드리안은 1917년에 신지학 협회를 탈퇴하지만 신지학의 이원적인 원리는 그가 신조형주의로서 추상이론을 정립하기까지 자연 질서의 근본적인 성격들을 표현하기 위한 정확한 직관적 수단인 수직·수평선의 바탕이론이 되었다(김형자 1998).

## 3. 몬드리안과 신조형주의

신조형주의는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성행한 미술사조로 당시 파리에서 입체파 화가그룹으로 활동하던 몬드리안이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일으킨 유럽회화운동이다. 몬드리안은 또한 자신의 그림에 호평한 반되스버그(Theo van Doesburg), 반 데르 레크(Van der Leek)를 만나 서로가 회화가 새로운 조형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과 '예술에서 외형의 축소'라는 동일한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과 데스틸(Destijl)을 결성하여(김현화 2002) 동명의 잡지를 통해 데스틸의 중심이론이 된 신조형주의 이론을 발전·정립시키게 되었다.

신조형주의라는 용어는 신부이자 신지학자인 쉐마커스의 저술 [새로운 세계의 이미지(the new image of the world)]에서 차용된 용어이며(이정미 2004), 미적 표현 방식의 한정된 형식을 타파하고, 주제나 객체, 내부와 외부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표현을 하고자 즉, 개별과 보편적 이원성이 균형을 이룬 표현을 창조하여 이

원적 다양성에서 순수한 미적균형과 조화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수평과 수직이 직각으로 만나서 영구적인 균형을 얻고 거기에서 완전한 미를 느낀다는 몬드리안의 이론을 밑바탕으로 정립된 이론인 신조형주의는 회화, 건축, 디자인을 막론하고 모든 공간을 평면으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대상없이 모든 선과 형태를 수평과 수직의 직선과 그것이 엮어내는 직각, 네모로 제한된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색채는 주로 삼원색(빨, 파, 노)에 무채색(흑, 백, 회색)정도가 추가되어 사용되었고, 대칭구도를 배제한 비대칭 화면을 추구했으며 회화를 가장 순수하고 기본적인 조형요소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신조형주의 이론의 영향으로 그의 작품은 주로 삼원색과 무채색의 정방형, 장방형 등의 색면, 수평선과 수직선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끊임없는 변형의 시도에 의해 하나의 본질적으로 단순한 예술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 III.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의 다양한 작품세계 중 신조형주의 이론정립으로 추상세계를 전개한 파리시대의 작품들로 범위를 한정지어 수평수직선의 형과 삼원색과 무채색의 색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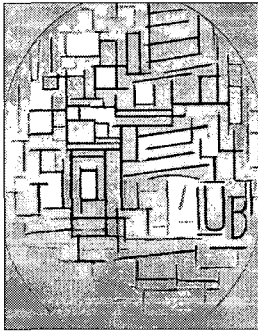
#### 1. 형의 요소

형(Shape)은 우리 눈에 의해 포착된 대상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를 지니는 것으로, 형태(form)는 형에 포함된 존재로서 '모든 형은 어떤 내용을 담은 형태' 라고 말할 수 있다. 관념상에 있는 기본적인 형은 점, 선, 면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한다(이은경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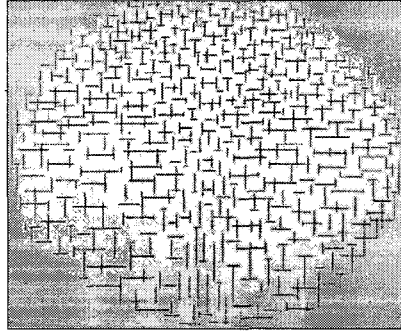
몬드리안의 회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요소인 수평수직선은 앞서 말한 신지학의 이원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몬드리안은 수평-여성, 수직-남성이라

는 이원적 요소로 즉, 여성=정적이고 보존적/방해적인 요소/물질적인 요소/수평선/정신적 기쁨, 남성=동적이고 창조적이며/표현적이고 진보적인 요소/수직선으로 대립시켰다. 이 이원적 원리는 우주에 내재해 있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상징이며, 사물에서 발견되는 서로 대립하는 평형적인 긴장이라 할 수 있다(이정미 2004). 이 긴장은 수직수평이라는 요소로 요약되고 이들의 대립이 결국 직각과 사각형의 평면을 만들어 내는데 몬드리안은 이러한 단순화 과정을 통해 '의지'의 상징인 수직선과 '휴식의 상징인 수평선이라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요소들의 대비를 화면 전체에 확산시켰다(이은경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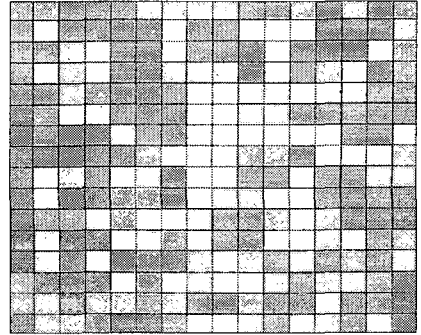
이러한 원리의 수평수직선은 신지학뿐만 아니라 사물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대상을 철저히 해체·분석한 입체주의의 기하학적 조형성 측면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이는 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조형요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조형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 몬드리안은 입체주의로부터 시작한 분석과 단순화의 과정을 감축과정으로 보았고, 신조형주의 작품들을 완전 추상으로 보고 수평과 수직선을 이용한 회화 표현(이석우 역 1986)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그가 수평선과 수직선을 과장되게 사용해 구조적 요소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몬드리안이 파리에 머물면서 추상화로의 발전을 위한 여러 습작 중 하나로 그는 이 시기에 풍경과 나무, 건물, 사람들을 단순화시켰다. 또한 색채의 선택도 아직은 분명하진 못한 것 같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직관과 감각을 통한 그의 추상화가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그가 전쟁당시 고향 해변에 살면서 그린 그림 표면만이 선적인 형태의 리듬감있는 패턴을 이루며 박동하고 있다. <방파제와 바다>연작은 <양과 음의 구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형태적 요소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이다(이주은 역 2004). 그는 작품에서 나무는 남성적, 수직적인 것으로 표현한 반면 바다는 여성적, 수평적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 연작들은 자연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한 이탈을 성공적으로 탐구한 신조형주의의 초안이 되는 기념비적인 회화라 말할 수 있다(김현화 2002).



〈그림 1〉 타원형 구성.  
1914



〈그림 2〉 방파제와 바다  
: 구성 No.10,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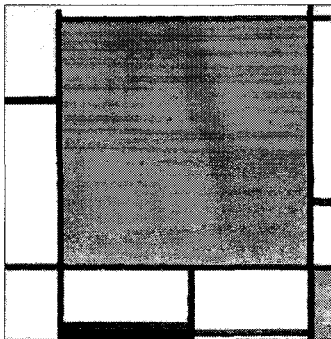


〈그림 3〉 격자구성 NO.9, 밝은 색채의 장  
기판,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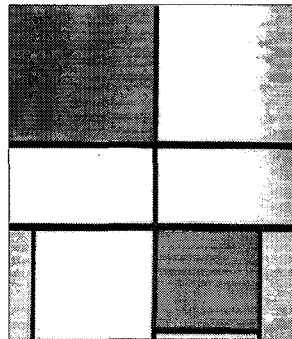
몬드리안은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성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림 3〉을 보면 수평성과 수직선이 직각의 만남으로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분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속적으로 분할되어 만들어지는 격자구조는 화면 밖으로 팽창되는 느낌을 주고 수평수직의 직각적 리듬은 연속되어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김현화 2002).

몬드리안의 파리시대는 19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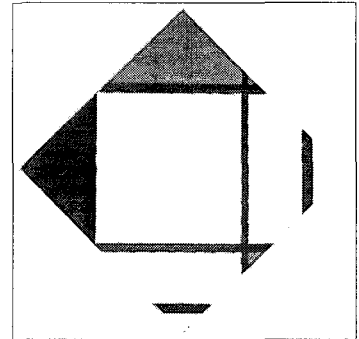
되었는데 그는 1920년부터 직각의 선적구성(그림1, 2)을 사각형의 면의 구성으로 전환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작품들은 삼원색, 무채색, 그리고 수평과 수직의 상징적 대립이 만들어 내는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그의 작품세계가 신조형주의 원칙과 한층 일치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4〉 빨강, 회청색, 노랑 검  
정, 파랑의 구성, 1922



〈그림 5〉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1922



〈그림 6〉 빨강, 검정, 파랑과 노랑  
의 마름모꼴구성, 1925

몬드리안은 신조형주의 이론으로 시작된 데스틸을 1925년 반 뒤스버그의 요소주의로 인해 탈퇴하게 되는데 요소주의(ELEMENTALISM)란 반뒤스버그가 몬드리안의 순수주의적 마음에서 나온 지나치게 철저하고 엄격한 사상과 단순한 성격의 평면, 수직, 직각, 배타적인 색상사용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수평, 수직을 기본 목표로 한 45도 대각선 구도인데 이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적 지나친 독단과 근사안적인 응용에 대한 반발로써 탄생하였다.

하지만 몬드리안은 반 뒤스버그의 사선에 대한 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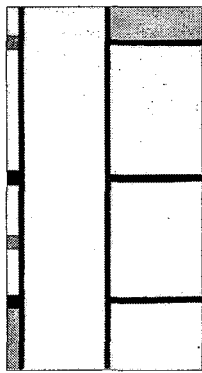
에도 불구하고 직선의 엄격함을 파괴하려는 역설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마름모 형태의 캔버스를 이 용해서 사선을 은유적으로 동반하는 작품을 실현했다. 캔버스 안은 수평과 수직의 직각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름모형태의 캔버스때문에 사선이 주는 분위기가 작품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화 2002). 〈그림 6, 7〉을 보면 높이가 넓이의 두 배이며 두 개의 수직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오른쪽 방향에서 보면 점점 면들이 작아지는 원근감

을 표현했으며, 수평선의 면은 건물의 창문을 연상시키는 건축적인 구조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수직선이 강조된 나머지 수평선이 위축되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보편성과 평등을 지향한 신조형주의 이론과 어긋나면 이러한 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현화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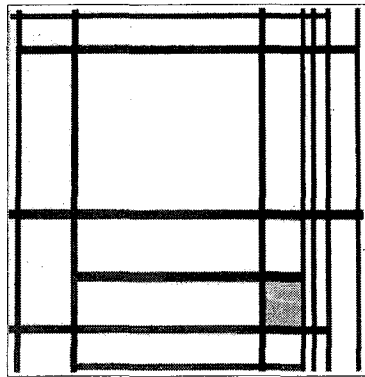
몬드리안은 이 시기에 또한 수평과 수직선의 구성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실험하였는데 그 예로 <그림 8>을 들 수 있다. <그림 8>을 보면 수평선과 수직선은 캔버스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극과 극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창살을 연상시키는 위협적

인 느낌을 주고 사각형에 갇혀있는 파란색은 답답하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 작품을 통해 몬드리안은 평온함을 나타내는 수평선과 생기를 나타내는 수직선, 이 두 선을 적절한 위치에서 서로 교차하면 역동적인 평온함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강조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정확성의 개념을 위한 표현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사용했던 몬드리안은 정확성만이 엄격한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그의 작품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론을 적용하여 수평선과 수직선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이은경 1997).



<그림 7> 흰색과 노랑의 구성 No.3, 193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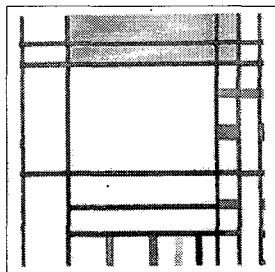


<그림 8> 선과 색채의 구성 No.3 : 청색구성,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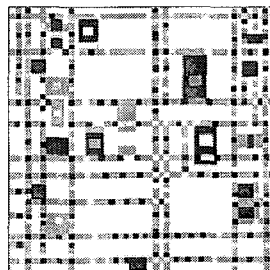
## 2. 색의 요소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세계에 입문하기 전에 영향을 받은 후기 인상주의, 입체파, 야수파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색채와 신조형주의와 신지학 등의 영향으로 그는

삼원색(빨, 파, 노)에 무채색(흑, 백, 회색)과 그 반대색으로 색채표현을 하였다(김운수 1984). 다음 <그림 9>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정색과 삼원색만으로 수평수직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색채의 단순화를 통해 형태 또한 단순화시켰다.



<그림 9> 콩코드 광장, 1938-43



<그림 10> Broadway Boogie Woogie, 1942-43

〈그림 10〉을 보면 그 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부기우기의 제목이 말하듯이 음악적 리듬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몬드리안은 음악적 절분법의 리듬에 양분함으로써 과거에 사용된 검은색 띠들이 사라지고 빨강, 노랑, 파랑색의 작은 정사각형의 연결이 과거 검은색 띠들로 대신하였다(김형자 1998). 또한 공간과 형태가 분리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직선과 수평선이 어울리며 리듬감을 주고 있으며 밝고 화사한 색채를 사용하여 절대적인 평면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편과 균형의 심오한 작가 정신을 보여주는 이 작품 속의 화려한 색채와 차가운 기하학적 선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고 있었지만 그는 음악조차도 색채로 경험하고 인식함으로써 대상의 색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몬드리안은 자신이 주장한 신조형주의 특징에서처럼 삼원색과 무색의 평면 또는 장방체로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며 이러한 그의 색채사용은 1960년대 몬드리안룩을 필두로 색채추상과 현대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IV. 현대패션에 응용된 몬드리안의 조형요소

현대패션에서 각 시대의 예술사조는 복식의 조형과 색채, 표현기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화의 조형요소들은 패션디자인의 요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패션계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회화의 조형요소들을 응용한 디자인을 컬렉션에서 선보이며 디자인의 창조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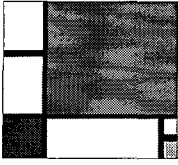
예술사조는 현대패션에서 주로 실루엣, 재질, 컬러, 디테일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조형주의

의 조형요소들 중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몬드리안 작품과 비교하여 수평수직선과 수평수직선이 만나 생기는 면, 마름모 등의 형과 삼원색, 무채색 등의 색의 요소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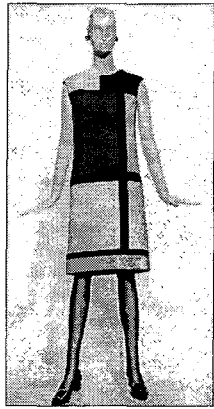
##### 1. 형의 요소

현대패션에서 응용된 몬드리안의 형의 요소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수평수직선의 활용이다. 〈그림 12〉는 1965년 겨울, 잉생로랑(Yves Saint Laurent)의 'Mondrian' 컬렉션에 등장한 저지(jersey) 드레스로 〈그림 11〉의 형태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몬드리안룩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직선적이며 단순한 H-실루엣의 디자인으로 몬드리안의 회화를 그대로 직물에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그는 2002년 컬렉션에서도 몬드리안룩을 다시 선보여 몬드리안의 수평수직선을 오차없이 응용하였다(그림 13). 이처럼 최근까지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이면서도 간결한 구성은 현대패션에 자주 응용되고 있다. 〈그림 14〉를 보면 단순한 디자인을 검정색의 수평과 수직선을 사용하여 단조로움을 탈피하였으며 수평과 수직선이 만나는 색면에 각각 다른 원색과 무채색을 사용하여 인체가 슬림해 보이는 착시효과도 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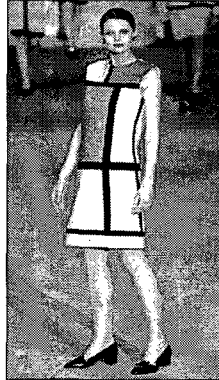
현대패션에서는 수평수직선의 형태를 약간 변형하여 응용한 디자인도 선보이고 있는데 〈그림 15〉를 보면 수평선과 수직선을 부드러운 곡선처럼 응용하여 직각이 아닌 형태를 선보이고 있으나, 수직선의 면적을 넓게 하여 앞부분에 배치함으로 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1〉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의 구성, 1930



〈그림 12〉 Yves Saint Laurent, 1965 F/W (YvesSaintLaurent,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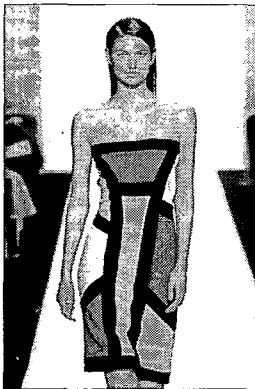
〈그림 13〉 Yves Saint Laurent, '02 S/S (Gap, Vol.27,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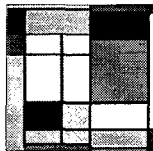
〈그림 14〉 Pierrot, '03/04 F/W (www.firstview.com)

〈그림 17〉에서 몬드리안의 작품〈그림 16〉과 비슷한 수평·수직선의 배치를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색상과 면적의 대비를 통해 조화와 균형감을 느낄 수 있다. 2000년 로에베(Loewe) 컬렉션에 등장한 의상은 단순한 가죽 원

피스에 수평·수직선이 몬드리안 작품〈그림 7〉과 같이 대칭과 비대칭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있는 단색으로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에 장식적인 효과도 가미하고 있다.



〈그림 15〉 Paula Hian, '04/05 F/W (www.firstview.com)



〈그림 16〉 노랑, 파랑, 검정, 빨강, 그리고 회색의 구성, 1921



〈그림 17〉 Comme des Garçons, 1996 F/W (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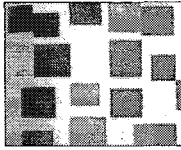


〈그림 18〉 Loewe, '00/01 F/W (www.style.com)

몬드리안의 작품을 응용한 디자인은 현대패션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2005년 카샤렐(Cacharel) 컬렉션이 선보인 의상은 〈그림 19〉와 비슷한 구성이 하나의 텍스타일로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몬드리안 작품

보다 더 가는 수평선의 무늬로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림 21〉의 짧은 단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초기 추상작품이 카샤렐의 의상〈그림 22〉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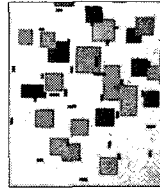




〈그림 19〉  
색채구성, 1917



〈그림 20〉 Cacharel, '05/  
06 F/W (Fashion New  
Perfect Vol.106, p.93)



〈그림 21〉  
색채구성 A, 1917



〈그림 22〉 Cacharel, '05/06  
F/W (Mode et Mode  
No.331,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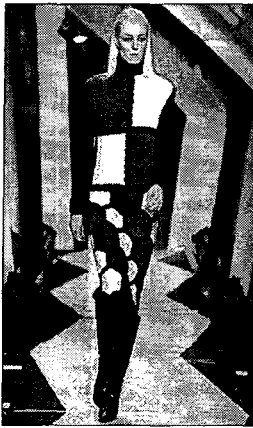
현대패션에 응용된 수평수직선의 형태를 보면 이는 직물의 문양이나 트리밍, 디테일로 응용되고 있으며, 몬드리안 회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하나의 직물로써 만들어 응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수평수직선이 응용되고 있는 디자인은 보통 단순한 실루엣의 원피스나 자켓, 치마 등으로 이러한 선들은 비례와 균형 및 강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2. 색의 요소

몬드리안의 색채는 그의 신조형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색채의 표현을 삼원색(빨.파.노)과 무채색(흑.백.회색), 그리고 무채색과 조화를 이루는 반대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23〉을 보면 몬드리안의 삼원색과 무채색 검정색이 균형을 이루며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강하게 대비시켜 서로의 색상을 자극하고 있으며, 몬드리안의 작품보다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4〉의 의상은 단순한 디자인

인의 색 구성을 강한 원색대비를 함으로써 불규칙적인 스타일로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고 있다. 강렬한 빨강색을 사용하여 강조를 함과 동시에 흑백의 명도대비를 이루고 있다. 추상회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채색은 흰색과 검정색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두 색은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대립을 이루고 있다. 〈그림 25〉를 보면 검정색을 사용하여 네크라인, 가슴부분, 허리 등의 트리밍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정색의 면적을 흰색의 면적에 비해 작게 함으로써 색대립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발렌티노의 의상(Valentino)인 〈그림 26〉을 보면 베이지 색상에 빨강과 검정을 코트 밑단부분에 마름모꼴로 배치시킴으로 장식적인 효과도 덧붙이고 있다.

현대패션에 응용된 몬드리안의 색채들은 현대패션에서 명도, 채도 또는 보색대비를 통해 대립과 균형의 미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색채의 다양한 사용은 많은 디자이너들의 감정과 디자인표현이라는 조형언어로서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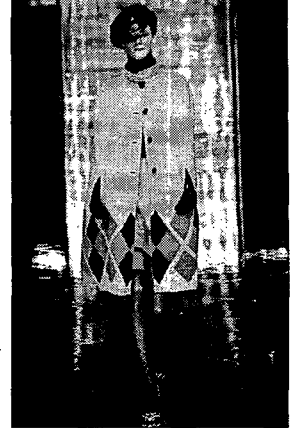
〈그림 23〉 Pierrot, '03/04 F/W (www.firstview.com)



〈그림 24〉 Pierrot, '03/04 F/W (www.firstview.com)



〈그림 25〉 Paula Hian, '04/05 F/W (www.firstview.com)



〈그림 26〉 Valentino, '05/06 F/W (Mode et Mode No.331, p.92)

현대패션에서 응용된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요소를 분석한 결과 형의 요소와 색의 요소로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의 요소에 있어서 수평·수직선의 응용과 면의 형태로 응용되고 있다. 몬드리안의 조형원리인 수평·수직선은 현대패션에서 면을 이루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비율, 리듬, 균형, 조화, 강조, 착시 등의 패션디자인의 원리에 따라 구성선(요크선), 밑단의 트리밍, 네크라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평·수직선이 만들어 내는 면이나 마름모의 형태는 몬드리안 회화를 고유한 형태의 텍스타일로 응용되거나 문양의 모티브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면의 구성이나 문양표현을 강조하기 위

해 의복의 형태는 대부분 단순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의 원피스, 자켓, 스커트 등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색의 요소에 있어서는 몬드리안 회화에서 사용된 삼원색과 무채색이 명도, 채도, 보색대비를 이루며 현대패션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회화에서 사용된 색채보다 더욱 강렬하고 선명한 고채도·고명도의 색채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좀더 자극적인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요소와 현대패션에서 응용되고 있는 조형요소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현대패션에 응용된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요소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요소	현대패션의 조형요소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평·수직선의 사용</li> <li>· 수평·수직의 짧은 단선의 기호화</li> <li>· 수평·수직의 직선이 엮어내는 직각과 네모로 제한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평·수직선의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선(요크선)으로 활용. 자켓, 스커트의 단 및 네크라인.</li> </ul> </li> <li>· 몬드리안 회화작품을 그대로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타일로 활용</li> </ul> </li> <li>· 색면구성의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물의 표면에 프린트 및 문양의 모티브로 활용</li> </ul> </li> </ul>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원색(빨강, 파랑, 노랑)</li> <li>· 무채색(흑, 백, 회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의 삼원색과 무채색의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고채도·고명도의 원색사용</li> </ul> </li> </ul>

## V. 결론

추상미술의 태동으로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성행한 신조형주의는 당시 파리에서 입체파 화가그

룹으로 활동하던 몬드리안이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일으킨 새로운 회화운동이다. 모든 선과 형태를 수평과 수직의 직선과 그것이 엮어내는 직각, 네모로 제한된 표현과 삼원색(빨. 파. 노)에 무채색(흑. 백. 회색) 사용이 특징

인 신조형주의 이론을 정립한 몬드리안은 그의 이론을 토대로 기하학적 추상의 작품세계를 펼쳤다. 본 연구는 기하학적 추상의 선구자이자 신조형주의를 정립한 몬드리안 작품의 조형요소를 살펴보고 현대패션에 응용된 형과 색의 요소 분석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이에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연주의 예술사조에서 시작된 몬드리안의 예술관이 추상세계로 발전되는데 있어 신지학과의 만남과 심취, 입체파의 형태분해, 야수파의 자유로운 색의 사용 등의 영향으로 점차 색과 형의 단순화를 통해 신조형주의의 길로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시기의 작품은 신지학의 이원적 원리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을 삼원색과 무채색을 사용하여 대립이라는 상반된 요소속에서 비롯되는 조화를 표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대패션에서 응용되고 있는 몬드리안 회화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형의 요소와 색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형의 요소는 첫째, 디자인의 단순화과정을 통해 수평수직선은 직물의 문양이나 트리밍, 디테일이나 면을 이루는 요소들로 응용되어 실루엣상의 비례와 균형 및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수평수직선이 만들어 내는 면이나 마름모 형태는 고유한 형태로 표현된 직물이나 문양으로 응용되고 있다.

색의 요소는 첫째, 삼원색과 무채색을 사용하여 명도, 채도, 보색 대비를 통한 대립의 긴장속에서 생성되는 균형과 조화의 미를 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회화보다 더 강렬한 고채도·고명도의 원색을 사용하여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대패션에 응용된 신조형주의에 관한 조형요소들은 현재 디자이너들이 차용하고 있는 예술사조와 연계되며,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과 예술을 접목시켜 소재와 문양개발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윤수 외 역 (1984). 미술의 역사. p.621, 삼성출판사, 서울
- 김현화(2002). 20세기 미술사. pp.77-85, 한길아트, 서울
- 김형자(1998). 기하학적 추상을 응용한 장신구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 Mondrian, piet. 오광수·박서보 감수(2004). Piet Mondrian, 재원, 서울
- 박경진(2002). 몬드리안의 조형원리를 응용한 Table 디자인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박은숙(1980). 자연에서 추상에 이르는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세계.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 윤현섭(1997). 추상미술과 지(知)의 자아. pp.174-182, 인간사랑, 서울
- 이석우 역(1986). 20세기 미술사. p.47, 열화당, 서울
- 이소영(1991). P. 몬드리안 표현법에 의한 현대의상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97). 현대의상에 응용된 추상회화의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 대전대 생활과학연구지, pp.1-3
- 이정미(2004). 몬드리안의 리얼리티와 작품전개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은 역(2004). 모던유럽아트. pp.187-189, 시공사, 서울
- 정혜정(1997). 현대패션에 응용된 수직,수평선에 관한 연구. 서경대 인문과학연구
- 조진숙(2004). 조형예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4)
- Pierre Berge(1997). YvesSaintLaurent. Universe, New York
- 한스 야페(1991). MONDRIAN. 중앙일보사, 서울
- 홍승혜 역(1990). 추상미술의 역사. 미진사, 서울
- www.firstview.com
- www.style.com